

한국공항공사, 데이터 기반 "K-공항 지상조업 충전 시스템" 상용화 착수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한국공항공사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항공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- 한국공항공사는 지상조업용 전기차 충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공항 운영의 안정성 및 친환경성 확보
 - 탄소중립 정책 이행, 외산장비에 대한 의존도 해소를 목표로 '25년 6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 '이브이시스'와 협력하여 견인차, 터그카 등 지상조업장비*용 충전기 국산화 및 상용화 추진
 - * 토잉카, 터그카, 벨트로더, 스텝카 등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위하여 공항 내 운용하는 지상조업장비를 통칭
 -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의 안전 성능시험 통과 및 실제 지상조업 차량을 활용한 충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 검증
 - 외산 대비 낮은 생산 가격과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국 공항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가속화
 - 차량과 실시간 연동되는 충전·전력 관리와 불꽃·수위·기울기 감지 기반 안전 감시 기능을 통합해 화재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국내 기술 지원으로 경제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
 - 차량과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배터리 잔량, 충전 시간,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
 - 불꽃·수위·기울기를 감지하는 '안전 3종 감시 기능'을 탑재하여 화재 예방 및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
 - 외산 충전기 대비 낮은 생산가격과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했으며, 상용화 이후에는 빠른 부품 수급과 국내 기술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성 향상
 - 단계별 인프라 구축 및 공항 운영 효율화 추진
 - '26년까지 김포공항(24채널), 김해공항(18채널), 제주공항(12채널)에 우선 도입하여 조업 환경 개선 및 운영 안정성 입증
 - '30년까지 전국 14개 공항에 81채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공항 내 지상조업 장비의 전동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공항 생태계 조성 추진

※ 출처 :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(2025.11), 한국공항공사, 국내 최초 지상조업장비용 전기차 충전기 국산화 성공